

현대의 탈진실 현상에 대한 감정사회학적 분석과 미학적 공공성을 통한 대안 모색

박덕현 (호남신학대학교 객원교수)

I. 들어가는 말

II. 현대의 탈진실 현상과 사적 영역 속의 감정

1. 현대의 탈진실 담론에 대한 감정사회학적 분석
2. 진실과 감정의 상관성에 대한 공공신학적인 함의점

III. 탈진실 이후의 세계를 위한 미학적 공공성

1. 진실을 구성하는 감정과 미적 체험
2. 진실의 공간을 창조하는 수행성의 미학
3. 탈진실 이후의 세계를 위한 미학적 신학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6.64.11>

• ABSTRACT •

An Emotional Sociological Analysis of the Contemporary Post-Truth
Phenomenon and A Search for Alternatives through Aesthetic
Publicness

Visiting Professor, Duck Hyun Park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Within the post-truth condition, affect and conviction shaped by individual and socio-cultural contexts often outweigh factuality in shaping public opinion. This study identifies emotion as a decisive force in relational processes that generate public transformation.

It advances an aesthetic publicness within public theology, drawing on the *Ästhetik des Performativen* to foreground embodied participation through which meaning arises intersubjectively. In contrast to media-constructed simulacra of truth, it contends that human existence may be reconstituted as a living medium through which the truth of Christ is made manifest.

Key words: Post-Truth Phenomenon, Sociology of Emotions, Aesthetic Publicness, The Aesthetics of Performativity, Theological Aesthetics

I. 들어가는 말

2021년 네이버(Naver)가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선호 광고주에게 유리하게 조작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를 불법적으로 차단하고 사용자들을 오도한 혐의로 2천4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¹⁾ 이와 같이 뉴스가 기자만의 영역이 아니라 AI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영역을 알고리즘 저널리즘(Algorithm Journalism)이라고 정의한다.²⁾ 문제는 무수히 많은 상호연결된 경로와 매개변수의 그물망으로 구성된 AI 체계 내부에서 뉴스의 진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특정 집단의 뉴스 조작에 의해 개인 혹은 공동체의 감정과 신념을 편향적으로 선동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다.³⁾ 이처럼 현대에 이르러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 진실조작 특정 소수의 이익을 위해 조종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윤리를 넘어서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그리고 전자 화폐 시장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가 이미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⁴⁾

현대의 ‘탈진실’(Post-Truth) 현상이란 “단지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서서 개인의 정치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미디어 시스템을 통하여 객관

1) 한수현, (2022년 12월 15일.), “‘비교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네이버에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https://www.lawtimes.co.kr/news/183827>, 2025년 11월 5일. 이 과정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 및 순위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네이버는 이러한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Donghee Shin, *Algorithms, Humans, and Interactions: How Do Algorithms Interact with People? Designing Meaningful AI Experiences* (New York: Routledge, 2023), 164.

2) Donghee Shin, *Algorithms, Humans, and Interactions*, 152.

3) Ibid., 155-156.

4) 박덕현, “현대의 탈진실 현상에 대한 기독교 덕윤리학적 고찰”(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25), 367.

적 사실보다 감정과 개인적 신념이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을 의미한다.⁵⁾ 옥스퍼드 사전에서 2016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탈진실 현상’은 특정한 역사적 서사에 대한 믿음이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용어가 대중화되기 전부터 “사회적 신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감정적 반응을 통하여 탈진실 현상은 이미 역사적으로 만연하여 있었다.”⁶⁾ 이와 관련하여 트레이시 보웰(Tracy Bowell)은 “사회적으로 공유된 감정이 개인과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개인의 감정이 새로운 진리의 담지자이자 진실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⁷⁾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탈진실 현상을 발생시키는 핵심 동인 중의 하나인 감정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전제로서 “인간의 행위에는 감정이 관여하고 있으며 인간 행위에서 감정적인 차원이 경제적인 합리성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⁸⁾ 특별히 모든 상징적 위계가 수평적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해석학적 맥락이 무한한 포스트모던적 공간에서 이성과 상상력은 위계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⁹⁾ 즉, “현실에서 인간의 상상력은 이성과 공존하여 세계에 대한 통합된 구조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의 고유한 감정이 세계의 통합된 구조에 기여할 수 있다. 그 사례로서 “미디어를 수용하는 개개인이 정치적인 주장의 진

5) Marius Gudonis, Benjamin T. Jones, *History in a Post-Truth World: Theory and Praxis* (Abingdon: Routledge, 2021), 5.

6) 위의 책, 15.

7) Tracy Bowell, “Changing the World One Premise at a Time: Argument, Imagination and Post-truth,” eds. Michael A. Peters, *Post-Truth, Fake News: Viral Modernity & Higher Education* (Singapore: Springer, 2020) 170.

8) 박형신, 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서울: 한길사, 2015), 14.

9) Bowell, “Changing the World One Premise at a Time,” Peters, *Post-Truth, Fake News*, 182.

실 여부와 관련하여 진실의 합리적인 연결보다는 감정적인 연결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감정적 진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¹⁰⁾

이처럼 모든 상징적 위계가 수평적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해석학적 맥락이 무한한 포스트모던적 공간에서 공공신학은 지금까지 이중 언어를 사용하여 종교와 세속 사회 양자 사이의 상호소통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공공신학의 방법론에 대해 공적 이성을 통하여 기독교의 진리와 세속적 사유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분류할 수 없다는 비판이 존재한다.¹¹⁾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현대의 탈진실 현상 속에서 감정이라는 요소에 대해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신학적 연구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이중 언어를 사용하여 종교와 세속 사회 양자를 연결시키는 이성 중심의 공공신학적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내부와 외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의 종교과잉 내지 종교의 정치과잉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즉, 종교의 문제가 세속화와 관련하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논의 속에서 제기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와 종교의 유착 그리고 종교의 권력지향으로부터 발생하는 속물화(snobbism)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다.¹²⁾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입신양명과 기복주의 신앙에 의하여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는 한국 교회의 속물화 현상에 대해 공공신학의 이중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공적 이성 중심의 방법론은 신학적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대의 탈진실 현상의 대안으로써 한계를 가지는 공적

10) 위의 책, 20.

11) 강영룡, “교회의 공적 실천의 방법으로서 ‘대화’와 ‘참여’에 관한 연구 : 위르겐 하버마스, 찰스 테일러, 미로슬라브 볼프를 중심으로”(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40-43.

12) 정대성, “세속사회에서 포스트세속사회로: 헤겔과 하버마스 철학에서 ‘신앙과 지식의 관계’,” 『哲學研究』 119(2011), 324-325.

이성 대신 “기존의 진실을 왜곡시키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에 대해 논증하고자 한다.¹³⁾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성석환이 강조한 바와 같이 ‘사회에 대해’ (to society) 대화하는 기존의 전통 신학과 달리 이제 ‘사회 안에서’ (in society) 대화를 시도하는 공공신학의 함의에 주목하고자 한다.¹⁴⁾ 즉, 지금까지 단순히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만 제한되었던 감정이 오히려 개개인 사이의 감정적 연결을 통하여 기존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감정의 상호작용 자체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에 대해’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탈진실 담론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결정하는 사용자가 쌍방향적인 속성을 통해 끊임없이 사회 구조와 연결되어 변화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탈진실 현상이 발생하는 특정한 시공간을 포착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는 점이다.¹⁵⁾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공공신학의 흐름 중의 하나로서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미학적 실천을 통하여 사회 안에서 신학적 대화를 시도하는 ‘미학적 공공성’의 분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대의 탈진실 현상 속에서의 감정이라는 핵심 요인에 대해 분석한 후에 이러한 개인의 감정이라는 내적 요인을 가지고 ‘수행성의 미학’이라는 미학적 공공성의 실천을 통해 진실의 공간을 창조하는 가능성과 그 한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13) Jayson Harsin, “Post-Truth and 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 *Communication: Oxford Research Encyclopedias* (2020), 12.

14) Sebastian Kim and Katie Day, “Introduction,” *A Companion to Public Theology* (Boston: Brill, 2017), 11; 성석환, 『공공신학과 한국 사회: 후기 세속 사회의 종교 담론과 교회의 공적 역할』(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15쪽에서 재인용.

15) Dominic Malcolm, “Post-Truth Society? An Eliasian Sociological Analysis of Knowledge in the 21st Century,” *Sociology* 55(2021) 1074-1075.

II. 현대의 탈진실 현상과 사적 영역 속의 감정

참과 거짓을 이용하는 현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일반 대중을 ‘우리’와 ‘그들’로 분열시키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영웅이나 구세주로 포장하고 있다.¹⁶⁾ 이를 위하여 현대의 미디어는 사회적 무의식 속에 만연한 감정을 깊숙이 자극하고 악화시켜서 감정의 양극화된 현실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선동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¹⁷⁾ 본 단락에서는 이처럼 탈진실 담론과 관련하여 양극화된 현실을 형성하는 감정이 가지는 사회학적 함의와 이에 대한 영향과 그 감정사회학적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현대의 탈진실 담론에 대한 감정사회학적 분석

잭 바바렛(Jack Barbalet)이 ‘거시적 감정사회학’(macro sociology of emotion) 분야에서 정의하는 감정은 개인의 경험에 대한 주체의 사고 또는 경험에서 나오는 자기 설명의 언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여하는 세계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의미한다.¹⁸⁾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감정을 이루는 부분은 관계의 주체를 어떠한 식으로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체가 변화하는 가운데 그 관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부분이며 바로 여기에 감정 속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의 동학이 자리하고 있다.”¹⁹⁾

16) Jennifer Baldwin, “Protest and Resistance as Liturgy of the People,” *Taking It to the Streets: Public Theologies of Activism and Resistance* (Lanham: Lexington Books, 2019), 70.

17) Chiara Bottici, “The People and the Image of the Leader: Reflections on Mass Psychology,” eds. David Payne, Alexander Stagnell, and Gustav Strandberg, *Populism and the People in Contemporary Critical Thought: Politics, Philosophy, and Aesthetics*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23), 130.

18) Jack M. Barbalet, *Emotions and Sociology*, 박형신 역, 『감정과 사회학』(서울: 이학사, 2009), 7-8.

이처럼 사회구조적인 흐름을 구체화하는 감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힘이 가지는 균형을 통하여 문화적 형식을 형성하게 되었다.²⁰⁾ 하나는 본능적인 표현의 충동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수용성(social acceptability)이라는 제약이다. 그 결과로서 사회 구조 속에서 감정의 작용은 패턴화된 사회적 행동의 규칙성과 자아에 통합된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²¹⁾ 특별히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대상을 감동시키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직종간의 감정 노동이 존재한다.²²⁾ 하지만 감정이 가지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은 제도의 힘에 의해 단순히 밀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향력 안에서 끊임없이 대응하며 반응하고 있다.²³⁾

이와 관련하여 뉴스 기사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19) 위의 책, 13-14. 기존의 감정에 대한 사회학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감정의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와 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에 의하면 사회는 사람들을 도덕 공동체로 묶어주는 감정적 속성을 개인 속에서 자극하게 하는 동시에 개인에 의해 표현되어 기존의 사회적 권위를 파괴시키는 잠재성을 가진다. 다음으로 개개인의 감정에 주목하는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과 막스 베버(Max Weber)에 의하면 개인의 자기 결정에서 중요한 변수인 감정은 개개인의 도덕적 기준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Chris Shilling, “감정사회학의 두 가지 전통,” ed. Jack M. Barbalet, 『감정과 사회학』, 51.

20) Jonathan H. Turner, *On the Origins of Human Emotions: A Sociological Inquiry into the Evolution of Human Affec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43.

21) Sheldon Stryker, “Integrating Emotion into Identity Theory,” ed., Jonathan H. Turner, *Theory and Research on Human Emotions* (Amsterdam: Elsevier JAI, 2004), 7. 보다 구체적으로 감지(sensing)와 맥락화(contextualizing)의 과정을 통해 감정은 행동과 상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징·행동·의미 간의 관계적 유연성은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도록 돕게 되면서 개인의 자아와 문화를 동시에 변화시킨다. Erika Summers-Effler, “A Theory of the Self, Emotion, and Culture,” ed., Jonathan H. Turner, *Theory and Research on Human Emotions*, 277-292.

22) Kathy Charmaz, Scott R. Harris, Leslie Irvine, (*The Social Self and Everyday Life: Understanding the World Through Symbolic Interactionism* (Hoboken: Wiley Blackwell, 2019), 131-141.

23) 위의 책, 212.

참여도와 감정의 상태에 기초하여 특정한 그룹의 사회적 규범이나 ‘커뮤니티의 공유된 신념 체계의 가치와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²⁴⁾ 그 이유는 현대에 이르러 디지털 공간에서 다양한 매개체를 통하여 개개인의 신념 체계를 보다 강화시키고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필터버블과 하이퍼링크 그리고 이모티콘과 같이 “다양한 감정과 무수한 사실의 혼합을 통해 디지털 공간의 사용자는 일방향적이고 수동적인 정보 소비자를 넘어서서 쌍방향적이고 능동적인 정보 생산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²⁵⁾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탈진실 현상의 특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개개인의 감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흐름이 이미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되었다는 점에 있다.²⁶⁾ 커크패트릭(Andrew Kirkpatrick)에 의하면 “현대에서 진실을 전달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용하는 입장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진실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경험으로 인해 서로 변화하고 함께 새로워지는 감정적 공감을 의미한다.”²⁷⁾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 공감을 이용하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수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탈진실 담론이 진실보다 더 빠

24) Michela Del Vicario, “Echo Chambers, Emotional Contagion and Group Polarization on Facebook,” *Nature Scientific Reports* 6(2016), 1-2.

25) 박덕현, “현대의 탈진실 현상에 대한 기독교 덕윤리학적 고찰,” 24. 이처럼 공통적인 관심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공존할 수 있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상호적 의사 소통을 변화시켜 개개인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확장하게 하는 ‘하이퍼링크’(hyperlink) 그리고 다양한 감정의 의사소통을 수반하는 ‘이모티콘’(Emoji)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arah C. Haan, “The Post-Truth First Amendment,”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School of Law Scholarly Commons* 94(2019), 1070-1071.

26) 박덕현, “현대의 탈진실 현상에 대한 기독교 덕윤리학적 고찰,” 367.

27) Andrew Kirkpatrick, “Understanding in a Post-Truth World: Comprehension and Co-Naissance as Empathetic Antidotes to Post-Truth Political,” *Cosmos and History* 13(2017), 329-330.

른 속도로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되고 있다.”²⁸⁾

이 과정에서 디지털 공간 속에서 전달되는 의미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사회 시스템의 구조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감정적 공감에 기반한 문화는 이제 사회적으로 조건지어지고 기능적으로는 사회적 통제의 영역에 특정화된다.²⁹⁾ 이처럼 신자유주의의 흐름과 현대의 탈진실 담론 속에서 촉진되는 사회 구조의 계층화 형태는 감정에 의해 다음의 세 가지의 방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 표현 양식으로서 감정은 개인의 경험과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내재성을 나타내는 독특한 요소이자 표상이다. 둘째, 감정은 주로 감정적 에너지의 배분 변화를 고려하여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셋째, 특정 자원 분배에 의해 계층화된 사회의 구조는 다시 감정의 구조화 효과에 의해 강화된다.³⁰⁾

물론 고대와 근대 이전의 주요 문화 제도 역시 구전과 경전 그리고 연극으로부터 비롯되는 신화와 상상력을 통하여 도덕적이고 영적이면서 우주적 질서에 호소하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³¹⁾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심리학이 전문적 지식 체계로 인정되면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건강이 주요한 상품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고유한 언어와 규칙을 지닌 “감정적인

28) Soroush Vosoughi, et al, “The Spread of True and False News Online,” *Science* 359(2018), 1146-1151; Verena K. Brändle, “Claiming Authority Over ‘Truths’ and ‘Facts’: Information Risk Campaigns to Prevent Irregular Migration,” ed. Maximilian Conrad, *Europe in the Age of Post-Truth Politics: Populism, Disinformation and the Public Sphere* (London: Palgrave Macmillan, 2023), 200쪽에서 재인용.

29) Helmut Staubmann, *Sociology in a New Key: Essays in Social Theory and Aesthetics* (Midtown Manhattan: Springer, 2022), 41-43.

30) Christian von Scheve, *Emotion and Social Structures: The Affective Foundations of Social Order* (Abingdon: Routledge, 2013), 10-11.

31) Eva Illouz, Daniel Gilon and Mattan Shachak, “Emotions and Cultural Theory,” ed. Jan E. Stets, Jonathan H. Turner, *Handbook of Sociology of Emotions Vol II* (Midtown Manhattan: Springer, 2015), 237.

장(emotional field)”이 자리매김하게 되었다.³²⁾ 이는 문화산업의 관점에서 두 가지 과정을 촉발하였는데, 하나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감정 상품(emotional commodities)을 다양화하고, 시장 세분화와 청중 구분을 통해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다른 하나는 감정의 자극을 강화하여 흥분과 각성의 수준을 높게 유지하고자 하였다.³³⁾

본 단락에서 현대의 탈진실 현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회구조적인 차원까지 영향을 끼친 감정은 한편으로는 사회적·상징적 구조의 결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변화의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³⁴⁾ 그러므로 현대의 탈진실 현상 속에서 사회적 변화의 잠재력을 가진 감정의 중요성을 분석하기 위해 담론과 수행 그리고 감정이 서로를 공동 구성(co-produce)하는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 circle)³⁵⁾ 속에서 공공신학의 위치와 그 함의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진실과 감정의 상관성에 대한 공공신학적인 함의점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달리 과거에 감정이라는 동인은 사회적 변화의 잠재력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적 및 상징적 구조의 결과로서 간주되었던 바가 대다수였다. 그 사례로서 개개인의 감정이 고양되어 드러지는 9세기 중세의 미사는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한 구원의 갱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정교한 드라마로 제시되었다.³⁶⁾ 그러나 성석환에 의하면

32) 위의 책, 227.

33) 위의 책. 이 과정에서 가상세계의 감정 표현 기술은 가능한 한 직접적이고 신뢰성 있게 만들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뇌의 활동과 신체 반응 그리고 얼굴의 표정을 감정의 가상적 재현으로 번역하고자 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위의 책, 241.

34) 위의 책, 228.

35) 위의 책, 234.

36) William A. Dyrness, *(The) Origins of Protestant Aesthetics in Early Modern Europe: Calvin's Reformation Poe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61.

중세는 플라톤(Plato) 철학의 선과 악 그리고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는 이원론의 영향으로 인해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구분하였다는 점에서,³⁷⁾ 감정이 하나의 사회적 변화의 잠재적인 힘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중세의 이원론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감정이 사회적 변화의 잠재적인 동인으로 부각되었던 계기는 칼뱅의 종교개혁에 있었다. 장 칼뱅(Jean Calvin)의 세상의 구체적인 삶에서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순종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라는 부르심으로부터 비롯된다.³⁸⁾ 곧, 칼뱅에게 드라마의 미학적 속성은 설교와 성찬의 역동적인 집행에서 시작되었지만, 그저 의식의 시공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와 달리 설교와 성찬으로부터 비롯되는 미학적 속성은 개개인의 영성과 자발적인 감정을 통하여 도시의 특정 시공간으로 확장되어 신자들이 스스로 일상에서 드라마의 배우로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세 이후의 시대 속에 중세의 이원론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었다. 성석환에게 있어서 중세 이후의 근대는 양 축의 대립에서 계몽주의 이후 형성된 합리적 이성과 과학적 판단으로 인해 또 다른 한쪽을 선택한 결과였으므로 결국 이전의 이원론적 구조를 그대로 계승하게 되었다.³⁹⁾ 곧, 근대에서는 한 쪽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면서 주체적 자아의 실현을 위한 희생물로 전략시킨다. 그러므로 중세에서 근대를 거쳐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은 주체적 자아의 실현을 위해 주체와 타자를 동일시하는 흐름 속에서 소외되었던 개개인의 다양한 가치와 고유성에 주

37) 성석환,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의 문화변혁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 리처드 니버의 ‘변혁적 문화관’과 현대 삼위일체 신학을 중심으로”(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48.

38) Elsie Anne McKee, ed., *John Calvin: Writings on Pastoral Piety* (Mahway: Paulist Press, 2001), 157-193; William A. Dyrness, *(The) Origins of Protestant Aesthetics in Early Modern Europe*, 81쪽에서 재인용.

39) 성석환,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의 문화변혁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 148.

목하게 된다.

칼뱅이 강조한 바와 같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특정 시공간의 일상에서 신자들이 드라마의 배우로 참여하기 위해 개개인의 다양한 가치와 고유성을 존중하면서도 삶과 역사의 초월적 가치와의 교감을 추구하여야 한다.⁴⁰⁾ 특별히 더크 스미트(Dirk J. Smit)는 공공신학이 공통적인 특징이나 비교를 통해 보편적인 규칙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사회 구조의 특이성에 적합한 맥락을 지향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⁴¹⁾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개개인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삶과 역사의 초월적 가치와의 교감을 위해 개개인의 감정 속에서 당면한 사회 구조의 특이성에 적합한 맥락에 주목하고자 한다.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 그리고 삶과 역사의 초월적 가치 양자의 교감을 위하여 근대에서 행하여진 주체 중심의 일방적인 동일시 과정도 위험하지만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에서 연결의 대상 중심의 동일시 과정 역시 위험하다. 부연설명하면 개개인의 감정이 모든 정치사회적 현상을 기술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없다. 물론 현대의 공공신학에 대한 논의에서 공공의 개념은 특정 활동 영역인 ‘생활 세계’의 창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⁴²⁾ 곧,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 물리적 장소와 식별 가능하고 권위 있는 출처로부터 분리되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하고, 다공성이며, 끊임없는 협상의 대상이 되는 훨씬 유동적인 상황을 형성하게 되었다.⁴³⁾ 이로써 다음 단락에서는 단순히 공적인 장소 또는

40) Rudolf von Sinner, “Public Theology as a Theology of Citizenship,” in Kim and Day, *A Companion to Public Theology*, 244.

41) Dirk J. Smit, “The Paradigm of Public Theology: Origins and Development,” eds. Heinrich Bedford-Strohm, Florian Höhne, Tobias Reitmeier, *Contextuality and Intercontextuality in Public Theology: Proceedings from the Bamberg Conference 23-25. 06. 2011* (Berlin: Lit, 2013), 22.

42) Elaine Graham,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Public Theology in a Post-Secular Age* (London: SCM Press, 2013), 86.

공론장을 위한 신학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하고, 다공성이며, 끊임없는 협상의 대상이 되는 훨씬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개개인의 내적인 감정을 서로 연결하여 진실의 공간을 창조하는 관계적이고 개방적인 신학을 위한 미학적 공공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I. 탈진실 이후의 세계를 위한 미학적 공공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대의 탈진실 현상 속에서 ‘진실의 공간’을 창조하기 위한 공공신학의 과제는 바로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이분법적인 긴장을 넘어서는 신학의 개방성에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단락에서는 사회적 관계 배후의 감정을 존중하는 미학적 차원의 공공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미학은 관객이 작품 속에 있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었지만 현대의 미학에서 작품의 의미는 작품 자체를 넘어서서 존재하고 있다.⁴⁴⁾ 이에 본 단락에서는 관객과 작품 사이에서의 긴장을 넘어서서 관객의 몸 전체를 통해 지각하는 과정을 통해 관객과 작품의 상호존재적인 미학의 구조⁴⁵⁾에 대하여 논의한 후에 이에 대한 공

43) 위의 책, 91. 이와 관련하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흐름에 대해 루크 브레더턴(Luke Bretherton)의 주권 권력의 세 가지 이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로마법에 기반을 두고 정치를 포괄적인 주권 권력의 통치와 지배에 관한 것으로 개념화하면서 공적이고 합법적인 권위를 대표하는 주권자는 주권자가 부여한 권리를 지닌 사적인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 위에 존립한다. 둘째, 시민들이 집단적 자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공화국 정치 공동체에 대한 그리스로마 개념에 기반을 가진다. 셋째, 현대적 맥락에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 연합된 별개의 기관이나 그룹 간의 상호 교체를 의미하는 ‘연합’의 의미를 가진다. Luke Bretherton, “State, Democracy & Community Organizing,” eds. Sebastian Kim, Katie Day, *A Companion to Public Theology*, 95-97.

44) Hanne Appelqvist, *Wittgenstein and Aesthe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41.

45) Sabine Flach, *Sense Sensibility: Aesthetics, Aisthesis and Media of Embodiment* (Berne

공신학적 실천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진실을 구성하는 감정과 미적 체험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개인의 외모에서부터 도시와 공공 영역으로 그리고 경제에서 생태학으로까지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현실 세계의 미학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⁴⁶⁾ 즉, 신체의 미적인 완벽함을 추구하고 영혼의 미학화를 실천한다는 의미의 호모 에스테티쿠스(homo aestheticus)가 새로운 롤모델로 등장하고 있다. 그 결과로서 오히려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기존의 아름다움이 가진 질을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오늘날 공공 예술의 과제는 비미학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자 장식의 축소에 대한 욕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⁴⁷⁾ 이처럼 미학의 다양한 의미 중 하나의 특정한 의미를 미학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명확성을 암시하지만 사실상 미학의 영역에 대한 제국주의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⁴⁸⁾

다른 한편 로이 애스콧(Roy Ascott)에 의하면 현실 세계의 미학화와 더불어 디지털 세계에서는 주어진 상태 혹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예술 작품의 내용에 대한 감정 이입보다는 오히려 예술적 이미지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복수의 리얼리티(reality)를 구성하는 생생한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⁴⁹⁾ 이와 같이 다중적인 실재 속에 하나의 현실과 다른 현실 사이, 하나의 실재 상태와 다른 실재 상태 사이를 중재하는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이를

and Pieterlen: Peter Lang, 2021), 33-39.

46) Prabha Shankar Dwivedi, *Aesthetics and the Philosophy of Art: Comparative Perspectives* (Abingdon: Routledge, 2022), 7.

47) 위의 책, 9.

48) 위의 책, 10-19.

49) Roy Ascott, *Technoethic Arts*, 이원곤 역, 『테크노에틱 아트: 새로운 의식, 리얼리티, 예술의 창발을 향하여』(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82.

‘의미의 재양’이라고 정의한다.⁵⁰⁾ 본 단락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으로 인해 관계성을 상실한 채로 ‘의미의 재양’에 맞닥뜨리고 있는 미학 밖의 미학의 영역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세계의 비예술적인 미적 경험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예술 작품의 미적 경험 양자를 연결하는 미학적 공공성을 통하여 현대의 탈진실 현상 속에서 ‘진실의 공간’을 창조하는 공공신학적 책무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장 룩 낭시(Jean-Luc Nancy)에 의하면 예전의 미는 ‘진실의 찬란함’을 의미하였지만 궁극적인 선을 가리키는 미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변질에 의해 진실의 찬란함은 이성의 향유로 바뀌어지게 되었다.⁵¹⁾ 이러한 현실에서 미는 미 자체의 바깥으로 향하는 유출, 곧 ‘숭고’의 과정을 통과하여야만 비로소 진실의 찬란함을 회복할 수 있다.⁵²⁾ 이처럼 숭고의 개념은 ‘경계지어진 형상의 윤곽을 따라 전개되는 탈경계의 자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숭고의 미학은 언제나 상태의 미학에 맞서는 움직임의 미학을 의미한다.⁵³⁾ 숭고함을 일으키는 만남 속에서 숭고의 미학은 개개인은 자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체 자체를 넘어서 고양시켜 이기적인 자아를 초월하게 한다.⁵⁴⁾

이와 같이 상태의 미학이 아닌 움직임의 미학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예술가에 의해 빚어진 그들의 작품이 미적 경험의 유일한 공급자가 아니라 전제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⁵⁵⁾ 이는 예술과 예술가만이 특정 유형의

50) Jean Baudrillard, *Simulacres et Simulation*, trans. Sheila Faria Glaser, *Simulacra and Simula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4), 82-84.

51) Jean-Luc Nancy, “L’offrande Sublime,” *Du Sublime: L’Extrême Contemporain*, 김예령 역, “숭고한 봉헌,” 『숭고에 대하여: 경계의 미학, 미학의 경계』(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63-64.

52) 위의 책, 65.

53) 위의 책, 69.

54) Jason Frank, *Democratic Sublime on Aesthetics and Popular Assembl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13

고조된 감각적 경험의 유일한 설계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미학 이론의 자동적인 위계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다. 예술가에 의해 형성된 위계 질서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개개인의 미적인 경험은 각자가 처한 맥락의 세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기존 세계와 관계하는 역동적인 속성을 가진다.⁵⁶⁾ 하지만 기존의 예술적 위계와 대립하는 것은 지나친 개인주의로의 환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개인의 고유한 감정과 그로 인한 예술적 감각을 통하여 주어진 맥락 속에서 개인이 가진 사회구조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점에 그 목적을 가진다.

지금까지 세계와 관련하여 역동적인 속성을 가진 개인의 미적 체험은 현대의 정치적 현실과 관련하여 미시적 수준의 재구성이나 거시적 권력 구조 내에서 공명하는 민주주의 담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⁵⁷⁾ 이처럼 미시적 수준의 정치와 관련하여 어떤 지각 체제 내에도 의미 형성의 공유된 조건을 형성한다는 전제하의 ‘감각의 정치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미국 드루대학의 웨슬리 아리아라자(Wesley Ariarajah)는 “이데올로기의 정치”로부터 “정체성의 정치”로의 전환에 대해 강조한다. 곧, 아리아라자는 지금까지의 제3세계 신학이 희생자의 연대에 주목하였지만 희생자의 정체성이 어떻게 회복되고 바르게 세워지는가 하는 점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 진단하였다.⁵⁸⁾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데올로기의 정치를 넘어서서 개개인의 고유한 감정을 통하여 정체성의 정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미학의 역할을 환기할 필

55) James Thompson, *Care Aesthetics: For Artful Care and Careful Art* (Abingdon: Routledge, 2023), 23.

56) 위의 책, 42.

57) Frank, *Democratic Sublime on Aesthetics and Popular Assembly*, 193.

58) Wesley Ariarajah, “The Challenge of Building Communities of Peace for All: The Richness and Dilemma of Diversities,” *The Ecumenical Review*, 57/2(2005), 124; 박삼경,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화해의 윤리 공동체를 향하여,”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1(2021), 199-200쪽에서 재인용.

요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공론장은 인간 이성의 합리적 속성 이외에 개개인의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해 순전히 언어적인 것을 초월하는 예술적 감각을 수반하여야 한다.⁵⁹⁾ 그 이유는 예술적 감각이 특정한 권위에 의해 의존하는 닫힌 구조에서부터 다원적 속성 이면의 불확실성을 포괄하는 열린 구조를 실현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⁶⁰⁾ 이러한 예술적 감각을 통하여 공공신학을 구체화하기 위한 미학 방법론 중의 하나로서 다음 단락에서는 ‘수행성의 미학’(Ästhetik des Performativen)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진실의 공간을 창조하는 수행성의 미학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간 이성의 합리적 속성 이외에 개개인의 다양성에 기초한 다원적 속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신학이 가진 이중 언어는 한계를 가진다. 곧, “탈진실 담론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결정하는 사용자가 쌍방향적인 속성을 통해 끊임없이 사회 구조와 연결되어 변화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탈진실 현상이 발생하는 특정한 시공간을 포착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⁶¹⁾ 본 단락에서는 탈진실 현상을 발생시키는 개개인의 감정과 관련된 공공신학적 대안으로서 미학적 공공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에리카 피셔-리히테(Erika Fischer-Lichte)의 ‘수행성의 미학’(Ästhetik des Performativen)을 제시하고자 한다. 곧, 리히테가 강조

59) Martin Poole, Stephen B. Roberts, “Public Liturgical Theology through Community and Public Art,” eds. Sheona Beaumont and Madeleine Emerald Thiele, *Transforming Christian Thought in the Visual Arts: Theology, Aesthetics, and Practice* (Abingdon: Routledge, 2021), 203.

60) Lucy Newman Cleeve, “Stations of the Cross and Stations of the Resurrection,” in *Transforming Christian Thought in the Visual Arts*, 240.

61) Malcolm, “Post-Truth Society? An Eliasian Sociological Analysis of Knowledge in the 21st Century,” 1074-1075.

하는 수행성의 미학은 유한한 대상을 향한 무한한 육화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러한 수행성의 미학에서는 “예술가의 행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경험과 관객에게 불러일으킨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관객의 참여를 통해 그들만이 공유하는 새로운 현실 세계를 구성하게 된다.⁶²⁾ 이처럼 관객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수행적인 행위는 이미 주어진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성 자체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⁶³⁾

그 사례로서 “공연이란 배우와 관객 사이에 일어나는 순간적이며 역동적인 과정이다. 이처럼 관객이 배우의 연기에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온 육체에 공감각적으로 일어나는 몸의 느낌을 통해서 작품의 의미를 넘어서서 참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미의 창발을 가능하게 한다.”⁶⁴⁾ 그러므로 ‘의미의 창발을 실현하는 주체인 관객은 새로운 감각의 창조자’로서 정의할 수 있다.⁶⁵⁾ 아울러 “의미의 창발은 단지 자신에게 전달된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생성시키는 주체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자리에 다양한 의미의 창발을 발생시킬 수 있다.”⁶⁶⁾

수행성의 미학은 1970년대 예술의 구조가 내적으로 변화하면서 외적인 주변 영역이 예술로 진입할 때에 각각의 문화적 현상과 전체 문화를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기호의 구조적 관계 속에 파악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⁶⁷⁾ 이 과정에서 수행성의 미학은 해석학적 미학과 기호학적 미학으

62) Erika Fischer-Lichte, *Ästhetik des Performativen*, 김정숙 역, 『수행성의 미학』(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27-47.

63) 위의 책, 50.

64) 위의 책, 71.

65) 위의 책, 309.

66) 위의 책, 331.

67) 위의 책, 47.

로 분류할 수 있다.⁶⁸⁾ 첫째, 해석학적 미학은 주체와 객체, 관찰자와 대상자, 관객과 연기자의 관계의 상호 연관성으로부터 기인하며 둘째, 기호학적 미학은 신체의 물질성과 기호성의 관계 그리고 기표와 기의의 관계의 연관성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러한 미학적인 틀을 바탕으로 수행성의 미학은 참여자가 여러 물건을 손으로 만지는 감각적인 체험의 행위예술, 청중이 형성하는 다양한 행위와 소리를 구성하는 음악, 소설가와 함께 독자가 마음대로 조합가능한 소재를 제시하는 소설, 살아 있는 작가의 작품 낭독회로 인해 다양한 소리를 듣는 시, 그리고 등장 인물과 관객과의 소통으로 인해 역할 바꾸기를 시도하는 연극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⁶⁹⁾

특별히 이러한 의미의 창발을 가능하게 하는 수행성의 미학이 가진 사례 중의 하나인 ‘역할 바꾸기’는 현대의 탈진실 현상에 맞서서 진실의 기독교적 실천을 위한 삼위일체적 미학의 창조적인 힘을 경험하게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리히테에 의하면 ‘역할 바꾸기’는 행위자와 관객 사이에 공동으로 창조되는 수행성의 미학의 힘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다.⁷⁰⁾ 곧, 특정한 개인 또는 공동체의 이익으로부터 비롯되는 탈진실 현상 속에서 ‘역할 바꾸기’의 과정은 ‘진실의 권력’에 의해 희생되는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신체적 공동 현존을 조건으로 하여 미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표면적 이분법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 결과로서 “역할 바꾸기는 공연에 대한 불확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피드백 고리의 예측 불가능성을 증가시켜 정치적 잠재력을 노출시킨다.”⁷¹⁾ 그런데 리히테에게 있어서 이러한 ‘역할 바꾸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누

68) 위의 책, 27.

69) 위의 책, 31.

70) 위의 책, 93.

71) 위의 책, 103.

군가 권력이나 특권을 양도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⁷²⁾ 그러므로 리히테의 수행성의 미학은 삼위일체의 핵심으로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를 토대로 하는 예술가와 관객의 권력 양도와 부여 과정에 의해서만 실현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수행성의 미학을 통한 미학적 실천은 공공성과 개인성의 이분법을 무너뜨리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⁷³⁾ 예술과 삶의 분리 불가능한 성격을 가진 수행성의 미학을 통해서 현대의 탈진실 현상 속의 매스 미디어가 구상하는 진실의 허상에 맞서서 기존의 공론장을 포함한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살아 있는 유기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처럼 수행성의 미학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이유는 수행성의 미학을 통하여 구체화된 미적 지식이 하나의 개인 행위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사이의 감정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행위자들 사이에서 순환하는 관계적인 조화를 지향하기 때문이다.⁷⁴⁾ 수행성의 미학에서 미적인 경험은 경계적 경험으로서 변형 과정의 가능성을 허용하고 열어주며, 이는 새로운 미적 지식의 생성으로 이어지게 한다.⁷⁵⁾ 이 과정에서 행위자의 감정 안에는 단순한 내면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이해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감정은 객관적인 속성과 주관적인 속성을 넘어서서 행위자와 타자를 연결해주는 관계적인 속성을 가진다.⁷⁶⁾

72) 위의 책, 106.

73) 위의 책, 137.

74) Erika Fischer-Lichte, “Aesthetic Knowledge and Aesthetic Experience,” eds. Torsten Jost, Erika Fischer-Lichte, Milos Kotic, and Astrid Schenka, *Performance Cultures as Epistemic Cultures Vol.I* (Abingdon: Routledge, 2023), 114-116.

75) 위의 책, 120.

76) Phillip Zarrilli, “Learning “To Be Affected,” eds. Torsten Jost, Erika Fischer-Lichte, Milos Kotic, and Astrid Schenka, *Performance Cultures as Epistemic Cultures Vol.I*, 153.

그러므로 수행성의 미학에서 감정이 가지는 관계적인 속성은 앞서 성석환이 진단하였던 근대의 이원론적 영향 중의 하나로서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차이를 정당화하였던 근대성의 내러티브의 폐해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⁷⁷⁾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실패는 차이에 대한 자신의 몸과 기억 그리고 감각의 전체 영역을 인식하지 못하는 서구의 인식론에 있다.⁷⁸⁾ 이러한 근대화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인식론과 기존 미학의 범위 내에서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구 중심의 문화 이외의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미학적 재구성의 과정을 수반하여야 한다.⁷⁹⁾ 이로써 다음 단락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수행성의 미학을 삼위일체 신학의 역동적인 차원에서 해석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의 탈진실 담론 이후의 세계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3. 탈진실 이후의 세계를 위한 미학적 신학

지금까지 첫째, 탈진실 현상에 대한 분석과 둘째, 이 과정에서 감정이 가지는 사회학적 함의 그리고 셋째, 미학적 공공성의 실천에 있어서 공통적인 전제는 “당면한 세계가 자기 안에서 닫힌 구조가 아니라, 사랑의 창조주가 자신을 초월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⁸⁰⁾ 한스 우르 폰 발타자르(Hans Urs von Balthasar)에 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최고의 일치 속의 실재이자 영으로 충만한 공동체

77) Walter D. Mignolo, “Reconstituting the Destituted,” in Jost, Fischer-Lichte, Kotic, and Schenka, *Performance Cultures as Epistemic Cultures Vol.II*, 76.

78) 위의 책, 85.

79) 위의 책, 90-92. 이와 관련하여 국가 주도의 탈서구화는 오늘날 다극적 세계 질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반면 문화적 탈서구화와 탈식민성은 문화적 다원성에 대한 미학적 이해를 지향하고 있다.

80) Charles Mathewes, *A Theology of Public Lif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74.

안에서 존재론적 차이를 통해 환원불가능한 신비를 실현하신다.⁸¹⁾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철저한 순종 속에서 자신을 오직 전적으로 내어줌으로 인하여 존재하신다.⁸²⁾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의 상호적 사랑을 증언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물과 피의 자기 헌신 속에서만 자신을 드러내신다.⁸³⁾

그 결과로서 성령의 일치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너(I-Thou)'에 기초한 성육신적 사랑의 수직적 측면은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의미하는 수평적 측면까지 포괄하고 있다.⁸⁴⁾ 이 과정에서 교회의 공동체적인 생명은 특정한 언어와 행위뿐만 아니라 인격 전체가 세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자리매김한다.⁸⁵⁾ 이처럼 인격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랑을 전달하는 교회의 공동체적인 생명은 사물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물에 대한 두 가지 태도, 즉 하나의 대상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않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는 '향유'(frui) 그리고 하나의 대상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사용'(uti)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기존의 신학적 사유에서는

81) Hans Urs von Balthasar, *Herrlichkeit: Eine Theologische Ästhetik*, trans. Brian McNeil, *The Glory of the Lord: A Theological Aesthetics, Vol. II (Studies in Theological Style: Celestial Styles)*, ed. John Riches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84), 103, 654.

82) Balthasar, *Herrlichkeit: Eine Theologische Ästhetik*, trans. Brian McNeil, *The Glory of the Lord, Vol. VII (Theology: The New Covenant)*, ed. John Riches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89), 391.

83) Balthasar, *Theologik*, trans. Adrian J. Walker, *Theo-logic: Theological Logical Theory, Volume III (The Spirit of Truth)*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2000), 31, 74-75.

84) Balthasar, *The Glory of the Lord, Vol. VII*, 439.

85) Balthasar, *In Gottes Einsatz Leben*, trans. R. John Halliburton, *Engagement with God: The Drama of Christian Discipleship*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2008), 50-51.

신적 존재조차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⁸⁶⁾ 그러나 하나님의 전인격적이면서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향유’(frui)와 ‘사용’(uti)의 개념은 신적 존재를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랑을 발견하는 매개체로서 이해할 수 있다.⁸⁷⁾

특별히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체와 객체의 관계 속에서 타자를 소외시키는 기존의 이원론적 사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향유’(frui) 개념만이 아니라 ‘사용’(uti)의 개념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매개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공공신학적 담론은 이중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공적 이성을 통하여 기독교의 진리와 세속적 사유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논의에서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긴장을 극복하여 포스트모던 공론장에서 ‘향유’(frui) 개념만이 아니라 ‘사용’(uti)의 개념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매개체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행성의 미학에서 강조하는 ‘역할 바꾸기’의 실천을 통과하여야 한다.

곧, 서로간의 피드백 고리의 예측 불가능성을 증가시켜 정치적 잠재력을 노출시키는 ‘역할 바꾸기’는 누군가 권력이나 특권을 양도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⁸⁸⁾ 그러므로 리히테가 강조한 수행성의 미학은 삼위일체의 핵심으로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를 토대로 하는 예술가와 관객의 권력 양도와 부여 과정에 의해서만 실현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수행성의 미학을 통한 미학적 실천은 공공성과 개인성의 이분법을 무너뜨리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⁸⁹⁾ 이로써 수행성의 미학을 통해서 ‘향유’(frui)만이

86) Mathewes, *A Theology of Public Life*, 76.

87) 위의 책, 79.

88) Erika Fischer-Lichte, 『수행성의 미학』, 103-106.

89) 위의 책, 137.

아니라 ‘사용’(uti)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매개체라는 점에서 당연한 세계는 닫힌 구조가 아니라, 사랑의 창조주가 자신을 초월적으로 드러내는 구조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⁹⁰⁾

아울러 사랑의 창조주가 자신을 초월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에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월적 구조를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재길의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사이’의 공간에서 인격을 창조하신다.⁹¹⁾ 본회퍼에게 그리스도는 “개인의 인격을 창조하는 근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인격까지도 형성하는 창조자”로서 활동하신다. 새로운 종교 대신에 개개인의 삶을 향하시는 그리스도는 사회의 변두리의 실존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를 수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간의 삶 전체를 요구하고 계신다.⁹²⁾

그리스도는 진리와 정의의 궁극적인 척도이시기 때문에 현대의 탈진실 현상 속에서 삼위일체적 사랑에 기초하여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모든 존재와의 화해를 의미한다.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적 사랑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진실한 삶을 통하여 모든 존재와의 화해를 위해 개인의 감정을 ‘사용’(uti)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을 구체화하기 위해 인격 상호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양자를 구별하는 이창호의

90) Mathewes, *A Theology of Public Life*, 74.

91) 고재길, “사이 존재의 기독교윤리적 함의에 관한 연구: 부버와 본회퍼의 견해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7(2023), 208-209.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실존의 중심(Mitte)이자 인간 실존의 중보자(Mittler)이면서 동시에 역사와 자연의 중심이자 또한 인류의 중보자로서 자리매김하신다. 위의 논문, 211-212.

92) Dietrich Bonhoeffer, *Widerstand und Ergebung*, 손규태 외 역, 『저항과 복종: 옥중서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640, 682.

93) Mark J. Cartledge, *(The) Holy Spirit and Public Life: Empowering Ecclesial Praxis* (Lanham: Lexington Books, 2022), 212-218.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 형성과 성숙을 위해 사랑의 정서적 측면을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서적 역동에 대해 사랑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정서적인 선호도를 뛰어넘어 모든 대상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보편성의 규범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이와 동시에 보편성의 강조가 사랑의 관계를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그리고 개인 사이의 관계 형성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⁹⁴⁾

이처럼 이창호가 강조한 바와 같이 사랑의 정서적 측면을 존중하면서도 사랑의 보편적 규범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한 ‘수행성의 미학’은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강조하였던 성찬을 통하여 신학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강조는 창조가 지향하는 종말론적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성찬 예식을 통하여 종말에 개개인을 기다리는 천상의 만찬에 대한 갈망을 더욱 증폭시켜야 한다. 셋째, 성찬의 끝에서 참여자는 본래 먹는 자가 아니라, 먹히고, 만찬에서 소비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통합되는 행위의 역전이 이루어진다.⁹⁵⁾

특별히 이러한 성찬의 실천은 앞서 발타자르가 강조한 바와 같이 존재론적 차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동일하시면서 자기 내어줌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러한 상호적 사랑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현대의 탈진실 현상에 대한 신학적 대안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곧, 성찬의 수행을 기초로 하여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하

94) 이창호, 『사랑의 윤리: 사랑에 관한 신학적 윤리적 탐구』(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20), 59.

95) Mathewes, *A Theology of Public Life*, 294.

이델베르크 논제』(Heidelberg Disputation, 1518) 제28논제에서부터 비롯되어 칼 바르트(Karl Barth)의 교회교의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으시는 사랑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시는 사랑이다’⁹⁶⁾라는 대명제는 개개인의 감정을 구체화하는 수행성의 미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의 공간을 찾으시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의 공간을 창조하시는 사랑이다’라는 명제로서 새롭게 명증할 수 있다. 진실의 공간을 형성하는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에 의한 ‘역할 바꾸기’를 통하여 단순히 개별 주체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진실을 드러내는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진실의 공간은 특정한 소수에 의한 탈진실 현상으로 인해 배제되거나 희생되었던 타자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어 그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감정을 가지게 한다.

IV. 나가는 말

앞서 제시한 바대로 칼뱅의 종교개혁이 사회적 변화의 동인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었던 원인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라는 부르심에서부터 비롯된다. 곧, 종교개혁이 가진 사회적 변화의 힘은 설교와 성찬이 개개인의 영성과 자발적인 감정을 통하여 도시의 특정 시공간으로 확장하게 되었던 일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중세의 이원론을 이어받아 주체와 객체 사이의 도식을 강화하여 타자를 소외시키는 근대의 이원론은 개개인의 다양한 가치 그리고 삶과 역사의 초월적 가치 양자 사이의 긴장을 초래하였다.

96) Karl Barth, *Kirchliche Dogmatik*, trans. Geoffrey W. Bromiley, *Church Dogmatics II. 1: The Doctrine of God* (Edinburgh: T & T Clark, 1975), 273.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데도, 자기 자신과 인류 사이에 자기 본질의 넘침을 창조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넘침은 특정한 법이 전제된 넘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 안에 근거한 넘침이다.

본 연구는 근대의 이원론이 가지는 이러한 긴장을 극복하여 종교개혁이 가지는 사회적 변화의 힘을 일상에서 구체화하는 동인이었던 감정에 대해 주목하였다. 특별히 단순히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만 제한되었던 감정이 오히려 기존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감정의 상호작용 자체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에 대해’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공공신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내부와 외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와 권력의 선택적 유착 관계로 인하여 세속화의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속물화(snobbism)의 과정에 있다. 기존의 공공신학에서 논의하였던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속물화 현상 속에서 기독교 신앙과 세속적 사유 양자를 연결시키는 공적 이성이 오히려 양자 사이의 긴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로써 본 연구는 공적 이성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개인이 가지는 감정의 흐름을 보다 사회구조적으로 구체화하는 미학적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의 탈진실 현상이 정보의 진위 여부를 결정하는 사용자가 쌍방향적인 속성을 통해 끊임없이 사회 구조와 연결되어 변화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미학적 공공성의 사례로서 수행성의 미학이라는 개념 중에 권력이나 특권을 양도하는 ‘역할 바꾸기’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케노시스가 가지는 공공신학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공공신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성과 개인성의 이분법을 무너뜨리게 하는 미학적 공공성은 기존의 공적 이성이 가지는 공론장의 닫힌 공간이 아니라 사랑의 창조주가 자기 자신을 초월적으로 드러내시는 공간을 구현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랑의

정서적 측면을 존중하면서도 사랑의 보편적 규범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본 연구는 개개인의 감정을 구체화하는 수행성의 미학을 통해 개개인의 다양한 가치와 역사의 초월적 가치 양자의 연결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현대의 탈진실 현상에 대한 본 연구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하여 유동적인 상황 속의 매스미디어가 구상하는 진실의 허상에 맞서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살아 있는 유기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향후에 미학적 신학이 추구하는 삼위일체적 속성에 기초한 성찬을 비롯한 다양한 신학적 실천은 개개인이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사회문화적 형태로 민주주의의 공공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논의한 ‘수행성의 미학’을 통한 개인과 공동체적인 변혁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 속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 미학’을 통해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탈진실 현상의 사회구조적 변혁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청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 박형신, 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서울: 한길사, 2015.
- 성석환. 『공공신학과 한국 사회: 후기 세속 사회의 종교 담론과 교회의 공적 역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 이창호. 『사랑의 윤리: 사랑에 관한 신학적 윤리적 탐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20.
- Ascott, Roy. *Technoethic Arts*. 이원근 역. 『테크노에틱 아트: 새로운 의식, 리얼리티, 예술의 창발을 향하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 Barbalet, Jack M. *Emotions and Sociology*. 박형신 역. 『감정과 사회학』. 서울: 이학사, 2009.
- Bonhoeffer, Dietrich. *Widerstand und Ergebung*. 손규태 외 역. 『저항과 복종: 옥중서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Fischer-Lichte, Erika. *Ästhetik des Performativen*. 김정숙 역. 『수행성의 미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 Nancy, Jean-Luc, ed. *Du Sublime: L'Extrême Contemporain*. 김예령 역. 『숭고에 대하여: 경계의 미학, 미학의 경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 Appelqvist, Hanne. *Wittgenstein and Aesthe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 Baldwin, Jennifer, ed. *Taking It to the Streets: Public Theologies of Activism and Resistance*. Lanham: Lexington Books, 2019.
- Balthasar, Hans Urs von, *Herrlichkeit: Eine Theologische Ästhetik*. trans. Brian McNeil, *The Glory of the Lord: A Theological Aesthetics, Vol. II (Studies in Theological Style: Celestial Styles)*. ed. John Riches.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84.
- _____. *Herrlichkeit: Eine Theologische Ästhetik*. trans. Brian McNeil, *The Glory of the Lord: A Theological Aesthetics, Vol. VII (Theology: The New Covenant)*. ed. John Riches.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89.
- _____. *Theologik*. trans. Adrian J. Walker, *Theo-logic: Theological Logical*

- Theory, Volume III (The Spirit of Truth)*.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2000.
- _____. *In Gottes Einsatz Leben*, trans. R. John Halliburton, *Engagement with God: The Drama of Christian Discipleship*.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2008.
- Barth, Karl. *Kirchliche Dogmatik*, trans. Geoffrey W. Bromiley. Church Dogmatics II, 1: The Doctrine of God. Edinburgh: T & T Clark, 1975.
- Baudrillard, Jean, *Simulacres et Simulation*, trans. Sheila Faria Glaser, *Simulacra and Simula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4.
- Beaumont, Sheona and Madeleine Emerald Thiele, eds. *Transforming Christian Thought in the Visual Arts: Theology, Aesthetics, and Practice*. Abingdon: Routledge, 2021.
- Bedford-Strohm, Heinrich, Florian Höhne, Tobias Reitmeier, eds. *Contextuality and Intercontextuality in Public Theology: Proceedings from the Bamberg Conference 23-25. 06. 2011*. Berlin: Lit, 2013.
- Cartledge, Mark J. *(The) Holy Spirit and Public Life: Empowering Ecclesial Praxis*. Lanham: Lexington Books, 2022.
- Charmaz, Kathy., Scott R. Harris, Leslie Irvine. *(The) Social Self and Everyday Life: Understanding the World Through Symbolic Interactionism*. Hoboken: Wiley Blackwell, 2019.
- Conrad, Maximilian, ed. *Europe in the Age of Post-Truth Politics: Populism, Disinformation and the Public Sphere*. London: Palgrave Macmillan, 2023.
- Dwivedi, Prabha Shankar. *Aesthetics and the Philosophy of Art: Comparative Perspectives*. Abingdon: Routledge, 2022.
- Dyrness, William A. *(The) Origins of Protestant Aesthetics in Early Modern Europe: Calvin's Reformation Poe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 Evans, Fred. *Public Art and the Fragility of Democracy: An Essay in Political Aesthe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1.
- Fischer-Lichte, Erika., Torsten Jost, Milos Kotic, and Astrid Schenka, eds. *Performance Cultures as Epistemic Cultures Vol.I*. Abingdon: Routledge, 2023.

- Flach, Sabine. *Sense Sensibility: Aesthetics, Aisthesis and Media of Embodiment*. Berne and Pieterlen: Peter Lang, 2021.
- Frank, Jason. *Democratic Sublime on Aesthetics and Popular Assembl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 Graham, Elaine.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Public Theology in a Post-Secular Age*. London: SCM Press, 2013.
- Gudonis, Marius., Benjamin T. Jones. *History in a Post-Truth World; Theory and Praxis*. Abingdon: Routledge, 2021.
- Kim, Sebastian., Katie Day, eds. *A Companion to Public Theology*. Boston : Brill, 2017.
- Mathewes, Charles. *A Theology of Public Lif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Mignolo, Walter D. "Reconstituting the Destituted."Torsten Jost, Milos Kotic, and Astrid Schenka, eds. *Performance Cultures as Epistemic Cultures Vol.II*. Abingdon: Routledge, 2023.
- Payne, David, Alexander Stagnell, and Gustav Strandberg. eds. *Populism and the People in Contemporary Critical Thought: Politics, Philosophy, and Aesthetics*.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23.
- Peters, Michael A, eds. *Post-Truth, Fake News: Viral Modernity & Higher Education*. Singapore: Springer, 2020.
- Scheve, Christian von. *Emotion and Social Structures: The Affective Foundations of Social Order*. Abingdon: Routledge, 2013.
- Shin, Donghee. *Algorithms, Humans, and Interactions: How Do Algorithms Interact with People? Designing Meaningful AI Experiences*. New York: Routledge, 2023.
- Staubmann, Helmut. *Sociology in a New Key: Essays in Social Theory and Aesthetics*. Midtown Manhattan: Springer, 2022.
- Illouz, Eva., Daniel Gilon and Mattan Shachak. "Emotions and Cultural Theory." eds. Jan E. Stets., Jonathan H. Turner. *Handbook of Sociology of Emotions Vol II*. Midtown Manhattan: Springer, 2015.
- Thompson, James. *Care Aesthetics: For Artful Care and Careful Art*. Abingdon: Routledge, 2023.

Turner, Jonathan H. *On the Origins of Human Emotions: A Sociological Inquiry into the Evolution of Human Affec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_____. ed. *Theory and Research on Human Emotions*. Amsterdam: Elsevier JAI, 2004.

•논문

강영룡. “교회의 공적 실천의 방법으로서 ‘대화’와 ‘참여’에 관한 연구: 위르겐 하버마스, 찰스 테일러, 미로슬라브 볼프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박덕현. “현대의 탈진실 현상에 대한 기독교 덕윤리학적 고찰.”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성석환.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의 문화변혁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 리처드 니버의 ‘변혁적 문화관’과 현대 삼위일체 신학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고재길. “사이 존재의 기독교윤리적 함의에 관한 연구: 부버와 본회퍼의 견해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7(2023), 195-222.

박삼경.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화해의 윤리 공동체를 향하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1(2021), 185-207.

정대성. “세속사회에서 포스트세속사회로: 헤겔과 하버마스 철학에서 ‘신앙과 지식의 관계’.” 『哲學研究』 119(2011), 323-346.

Haan, Sarah C. “The Post-Truth First Amendment.”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School of Law Scholarly Commons* 94(2019), 1351-1406.

Harsin, Jayson. “Post-Truth and 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 *Communication: Oxford Research Encyclopedias* (2020), 1-31.

Kirkpatrick, Andrew. “Understanding in a Post-Truth World: Comprehension and Co-Naissance as Empathetic Antidotes to Post-Truth Political.” *Cosmos and History* 13(2017), 312-335.

Malcolm, Dominic. “Post-Truth Society? An Eliasian Sociological Analysis of Knowledge in the 21st Century.” *Sociology* 55(2021), 1063-1079.

Vicario, Michela Del. “Echo Chambers, Emotional Contagion and Group Polarization on Facebook.” *Nature Scientific Reports* 6(2016), 1-12.

•온라인신문

한수현, (2022년 12월 15일.) “비교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네이버에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https://www.lawtimes.co.kr/news/183827>. (2025년 11
월 5일)

논문투고일: 2026년 03월 15일

심사개시일: 2026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6년 04월 08일

• 국 문 초 록 •

현대의 ‘탈진실’(Post-Truth) 현상이란 단순히 특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유한 개인의 관점이나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으로부터 비롯되는 감정과 개인적 신념이 사회 각 분야의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이러한 탈진실 현상 속에서 본 연구는 관계를 이루는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공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핵심 동인인 감정을 다루었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기독교 내부 그리고 기독교 밖의 사회 정의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 양자를 연결하는 공공신학 중의 미학적 공공성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객이 배우의 연기에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온 육체에 공감각적으로 일어나는 몸의 느낌을 통해서 작품의 의미를 넘어서서 참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미의 창발을 가능하게 하는 ‘수행성의 미학’(Ästhetik des Performativen)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를 통하여 현대의 탈진실 현상 속의 매스미디어가 구상하는 진실의 허상에 맞서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살아 있는 유기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주제어: 탈진실 현상, 감정사회학, 미학적 공공성, 수행성의 미학, 신학적 미학
